

보험료 내리고 손해율 치솟아… 손보사 ‘구조적 적자’ 위기

손보사 4곳 올해 車보험 손해율 85%
최근 15년 누적적자 7.2조 달해

3분기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19%
비급여 쏠림·도덕적 해이 영향 커
“실손 보험료를 현실화 절실”

손해보험사가비상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각각 85%대, 119%까지 치솟으면서 대표 의무·대중형 상품이 동시에 구조적 적자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고 실손은 연 25%까지만 요율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 의료비와 정비비가 급증한 결과, ‘저보험료’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왔다는 평가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4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의 올해 1~10월 자동차보험 평균 누적 손해율은 85.7%로 집계됐다. 손익분기점으로 여기는 82% 안팎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10월 한 달 손해율은 87.4%까지 치솟았고, 올해 3분기까지 이 부문에서만 952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업계에서



Chat GPT가 생성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손해율 경고 이미지.

는 최근 15년(2010~2024년) 누적 적자는 7조2000억원, 올해만 5000억~6000억원 손실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자동차보험료는 최근 4년 연속 내려왔다.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 이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해마다 인하해 불가안정 기조에 동참해 왔다. 반면 같은 기간 정비공임은 지난 2022년 4.5% 인상을 시작으로 매년 2~4%대 인상이 이어졌고 부품값·렌터카 비용·인건비도 뛰었다. 경상환자 과잉 진료와 생계형 보험사기까지 겹치면서, 의무가입인 자동차보험이 이제는 “많이 팔수록 손실이 커지는 상품”으로 바뀌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부터 자동차보험은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사업이라기보다 손해만 덜 나면 다행이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덩치가 워낙 커서 보험료를 1~2%만 낮춰도 손해율이 그만큼 나빠지고, 개별 회사 입장에서 손익이 몇 백 억원씩 증발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을 합친 위험손해율은 119.3%다. 1세대와 2세대는 각각 113.2%, 114.5%였고, 3세대는 137.9%, 4세대는 147.9%까지 올라 전세대가 적자 구간에 놓였다.

최근 5년(2020~2024년) 누적 적자는 1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지난 2010년 30개사에서 올해 11월 18개사로 줄었다. 실손보험료는 2022~2025년 14.2%→8.9%→1.5%→7.5%씩 올랐지만 손해율은 여전히 세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급여 쏠림과 도덕적 해이는 실손 적자의 직격탄이다. 지난해 손보사 전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가운데 상위 10개 비급여 항목이 3조9000억원(30.1%)을 차지했다. 이 중 물

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2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비급여 주사제는 6525억원이 나갔고, 비급여 보험금은 2017년 4조8000억원에서 2023년 8조2000억원으로 약 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수 가입자(약65%)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반면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 안팎을 가져가는 불공정 구조도 고착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크게 오르지 못한 사이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를 실손이, 교통 인프라·의료비·정비비 상승을 자동차보험이 대신 떠안았다. 가격인 보험료는 정치·사회적 이유로 눌러놓고, 비용인 비급여·정비비와 허위·과잉청구는 제대로 건드리지 않은 결과가 손해율 급등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 의료보험은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10조원이 넘는 적자가 쌓이면서, 판매 보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실손 1~4세대의 보험료율을 현실화하고 요율 조정 원칙과 소비자 부담 분산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KB국민카드 ‘KB특별한 적금’ 가입 연 최고 15% 금리혜택

KB국민카드가 KB국민은행과 제휴해 적금 상품에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KB국민 위시올(WE:SH AI)1카드’를 보유하고 직전 6개월 간 KB국민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2026년 2월 28일까지 ‘KB 특별한 적금’ 6개월 만기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KB 특별한 적금 최고 이율은 연 6.0%이다. KB국민카드는 이벤트 대상 고객이 ‘KB국민 위시올(WE:SH AI)1카드’를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일까지 월 10만원 이상 이용하면 달성 횟수에 따라 최고 연 9.0%포인트(p) 추가 금리를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이벤트 대상 고객이 적금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2만원의 만기 축하금을 추가 지급한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11일 “당사 대표 카드상품과 KB국민은행 대표 적금 상품을 연계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신용회복위원회 주거취약계층 지원 서울시와 업무협약

신용회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구직활동이 제한된 주거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통장압류 해제 등 금융거래 정상화를 지원하고, 일자리 사업 참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숙인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시 신용회복상담병행 ▲노숙인시설 담당자를 통한 간소화 된 상담 신청 ▲도박·알코올 중독자 대상 찾아가는 금융교육 제공 등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노숙인의 26.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71.3%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됐다. 서울시노숙인일자리센터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한주 평균 10건 정도의 신용회복 관련 상담을 제공했다. 노숙인 중 상당수가 채무 관련 문제를 보유하고 있어 경제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안승진 기자

스타벅스 별 적립해 주고 해외 배송비 10달러 할인

카드사, 연말 프로모션 다채

카드사들이 연말을 맞아 다양한 할인·프로모션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가맹점 제휴를 통해 해외여행객을 겨냥하는 한편, 경품 추첨 등 시즌성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이달 말까지 글로벌 가맹점과 제휴를 맺고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해외 스타벅스에서 우리카드로 건당 20달러 이상 결제 고객에게 별 8개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 日 돈키호테 이용시 캐시백
KB국민, 해외 가맹점 100만 포인트
신한, ‘디스커버가 쓸꺼요’ 이벤트

연말 맞이 일본·미국·베트남 여행객을 위한 이벤트도 마련했다. 일본 돈키호테 전 지점에서 1만엔 이상 이용 고객에게 1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 베트남 롯데면세점에서 100달러 이상 결제 고객에게는 3만원 캐시백을 지급한다.

미국을 여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미국 본토에서 50달러 이상 결제할 때마다 5000원을 캐시백해준다. 코스트코·트레이더조·타깃 등 미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결제하면 30%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카드 해외 배송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연말 이벤트를 진행한다. 비자(Visa)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50달러 혹은 100달러 이상 구매 인증 후 아이포터·물테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0달러의 배송비를 즉시 할인해 준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로 해외 가맹점에서 2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용 금액의 최대 100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혜택은 오는 2026년 2월 27일 안에 제공된다.

KB국민카드는 해외 리조트 제휴를 통해 단독 이벤트도 추진한다. KB국민 마스터카드 고객 대상 ‘갤럭시 마카오 숙박&리조트 혜택 패키지’를 이벤트를 실시하는가 하면, 마카오 대표 복합리조트 운영사인 멜코그룹과 협력해 ‘하우스 오브 댄싱위더 쇼’ 관람료 10%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신한카드는 새해 맞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이날까지 신한솔페에서 ‘다 잘될 거예요, From SOL페이 운세타로 서비스’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벤트에 응모한 후 운세·타로 서비스에서 사주정보 등록 및 알림을 설정하고, ‘올해의 운세’ 탭에서 2026년 운세를 확인한 고객 전원에게 100 마이신한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추첨을 통해 이벤트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5만 마이신한포인트(50명) ▲배달의민족 5만원권(50명) ▲정관장 5만원권(50명) ▲올리브영 5만원권(50명) 등을 증정한다.

이달 19일까지 새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디스커버가 쓸(SOL)꺼요’ 이벤트도 마련됐다. 신한솔페이 ‘디스커버 SOL꺼요’ 페이지에서 1원 결제로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추첨을 통해 ▲키키니 작가 2026 탁상 달력(200명) ▲명태 맥박이 풍경(200명)이 지급될 예정이며 경품 미당첨자 전원에게는 10마이신한포인트가 제공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금감원 “대부업 불법추심 뿌리 뽑는다”

서울 등 4곳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의 준법의식 제고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국을 돌며 ‘대부업자 대상 설명회’를 연다.

최근 불법추심, 초고금리 계약 등 민생침해 행위에 대한 일제 검사와 함께 현장 교육을 병행해 취약차주 보호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역량을 동시에 끌어 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1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와 감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2025년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11일 대구를 시작으로 12일 광주·부산, 17일 서울 등 4개 도시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각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요 법규 위반 사례와 업무상 유의사항(세션Ⅰ) ▲개정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과 채권추심 시 유의사항(세션Ⅱ) ▲개정 ‘대부업법’과 관련 가이드라인(세션Ⅲ) 등 세 세션으로 구성된다. /김주형 기자



우리은행 굿월브랜치(우리은행X굿월스토어 밀알여주홍문점) 1호점.

/우리금융

우리금융, 사회공헌형 점포 ‘굿월브랜치’

은행+기부매장 공존 ‘여주점’ 개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경기도 여주시에 사회공헌형 은행점포 ‘굿월브랜치 여주점’을 개점했다고 11일 밝혔다.

‘굿월브랜치’는 폐쇄 예정이었던 우리은행 영업점을 축소 운영하고, 남은 공간에 굿월스토어를 입점시킨 ‘숍인숍(Shop-in-Shop)’ 방식의 사회공헌형 점포다. 은행과 기부 매장이 공존하여 지역

주민에게 필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기부문화 확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방 영업점 폐쇄에 따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 정책에 부응해, 금융권 최초로 유희공간과 굿월스토어를 결합한 상생 모델을 도입했다. 굿월브랜치 여주점은 지역 내 금융권 1호 사회공헌형 점포로, 향후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